

| Ghetto Bouquet | |
|----------------|---|
| 참여 작가 | 유신애 (Sinae Yoo) |
| 전시 기간 | 2025 년 11 월 27 일 – 2025 년 12 월 27 일 (오프닝 리셉션 : 11 월 27 일) |
| 장소 |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
| 개관 시간 |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
| 주최, 주관 | 핼 (FIM) |
| 후원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

전시 내용

핼(FIM)은 2025 년 11 월 27 일부터 12 월 27 일까지 《Ghetto Bouquet》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작가 유신애의 회화와 조각 작업 10 여점이 전시됩니다. 작가의 작업은 축적된 감정의 무게와 이미지의 매끄러움이 나란히 놓임으로써 조성되는 긴장과 관조를 다루며, 유광의 피부처럼 매끈히 닳인 표면 위에서 스크린 시대의 위선적 감정과 소문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전시 제목 ‘Ghetto Bouquet’는 ‘게토(Ghetto)’의 고립된 정서와 ‘부케(Bouquet)’의 혼성미가 공존하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매혹적인 화면과 피로하고 무감각한 인물을 병치하는 작가의 작업을 표현합니다.

전시 서문

Ghetto Bouquet

고전 유화의 표면에는 시간이 천천히 스며든다. 겹겹이 쌓인 붓의 흔적과 숨결이, 바라볼수록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깊이를 만든다. 한편 디지털 화면에서 빛은 빠르게 피어난다. 손의 체온이나 물감의 냄새 없이 나타난 빛이지만, 그 즉각성은 또 다른 감각의 시간을 만든다. 느린 호흡과 빠른 반짝임이 한 화면 위에서 공존할 때, 두 방식은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 축적된 감정의 무게와 순간의 매끄러움이 나란히 놓이며, 오늘 우리가 이미지를 경험하는 방식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묻는다.

작가는 이 두 층위의 빛이 충돌하는 순간을 붙잡아, 오늘의 인간상이 가진 피로한 연민과 도덕적 포장,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무감각을 이번 회화전시 'Ghetto Bouquet(게토 부케)'로 드러낸다. 전시는 유광의 피부처럼 매끈하게 닦여진 표면 위에서, 스크린 시대의 위선적 감정과 소문 구조를 들여다본다. "자본사회에서의 연민은 언제나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가는 감정이 피로해진 시대의 정서를 회화적 언어로 치환한다. 여기서 광택은 단순한 미감이 아니라 감정의 은폐 장치이자, 사회가 선택한 윤리의 메이크업이다.

특히 작가는 현 사회의 지독히 과잉되었으면서도 공허한 사회의 태도, 즉 지나치게 감정적이면서도 냉담하고, 가까운 듯 밀착되지만 정작 무책임하게 미끄러지는, 호들갑스럽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마치 겉에서 속삭이듯,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린다. 감정에 과몰입하지도, 냉소로 단절하지도 않은 채, 그 불편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 거리감은 곧 화면 위 빛의 반사처럼 관람자를 돌려보내며,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민중미술, 풍속화, 설화의 구성을 가져오지만, 인물과 상징들은 광고 이미지나 틱톡 클립처럼 번역된 상태로 나타난다. 색은 과포화되고, 붓질은 유려하지만 체온이 빠져나간 듯 건조하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스크롤하며 소비하는 '디지털 연민'의 감정 구조를 풍자한다.

전시 작품들은 제목과 같이, '게토(Ghetto)'의 고립된 정서와 '부케(Bouquet)'의 혼성미는 각기 빛과 물질의 층으로 쌓이며 공존한다. 화면은 광고판처럼 매혹적이지만, 인물들은 피로하고 무감각하다. 이 반짝임 속에서 윤리는 매끄러움으로 포장되고, 아름다움은 위로가 아니라 무감각의 코팅이 된다. 이로서 작품의 광택은 단순한 질감이 아니라, 고전의 느린 빛과 디지털의 빠른 반사가 충돌하는 경계면이다. 감정은 연출되고, 연민은 조명받고, 이미지가 진실을 선점한다. 그리고 회화는 조용히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다고 믿는가.

반짝거림이 감정의 깊이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진실보다 표면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는가.

작가 소개

유신애는 학제적 예술(學際的 藝術/Interdisciplinarity)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감정이 하나의 자원으로 거래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이자 그 메커니즘을 들춰내는 해부자로서 작업한다. 그의 작업은 자본주의적 감정경제가 어떻게 주체를 매혹시키고 동시에 소진시키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광고 이미지, 게임적 인터페이스, 하이퍼-폴리시드 서사 구조를 차용하되, 그것을 열광의 기계가 아니라 피로와 결핍의 무대를 구성하는 언어로 전유한다. 회화와 영상은 그에게 단순한 매체가 아니다. 하나는 기억이 침전되는 느린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성과 소멸이 교차하는 발광면이다. 이 두 시간성의 충돌 속에서 관객은 '친절한 폭력'과 '공감의 지배'라는 시대의 감각을 목격한다.

작가는 스위스 베른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2016 년 예술리만 코티상(Aeschlimann Corti Award)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Swiss Art Awards (2018), 프라하현대미술센터 Futura (2019), 런던 Serpentine Gallery (2020), 울산시립미술관 커미션 (2022), 선전 평산아트뮤지움 (2023),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24) 등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스위스 칸톤 베른 컬렉션 등에 소장되었으며, 또한 두산연강미술상 (2023), 프리즈 서울 Focus Asia 스탠드상(2023)을 수상하며 국내외 미술계에서 예술적 지속성과 성취를 인정받았다.

유신애는 또한 'MEEK'라는 이름으로 전시 기획을 수행하며, 제도적 언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우회로에 관심을 둔다. 더불어 'FUCKERY POETRY READING GROUP'을 통해 비정형적 공동체성과 목소리의 정치학을 실험한다. 이는 목격자가 아닌, 발화자이자 방해자로서 예술가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유신애의 작품을 마주하는 일은 하나의 감정 체계를 통과하는 경험이다. 화면 속 빛과 표면, 과잉과 공백은 단지 시각적 장식이 아니다. 그것들은 감정이 권력화되는 순간의 미세한 떨림을 드러내며,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 부르는 감정적 장치가 사실은 윤리적 피로와 착취의 회로임을 폭로한다. 그의 세계에서 미는 피상적 매혹을 넘어서 불편함을 보존하며, 질문을 유예하지 않는다. 결국 그의 작업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감정의 구조를 의심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피로의 지형을 더듬게 한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대표작 이미지



유신애, *Ghetto Bouquet*, oil on linen canvas, 2025, 112.1 x 145.5 x 3cm

이미지제공 유신애



유신애, *Fear Arrives Before Gravity Does*, oil on linen canvas, 2025, 90.9 x 65.1 x 3cm
 이미지제공 유신애



유신애, *Silk Overdose*, 2025, ceramic and aspirin, 37.2 x 31.5 x 19 cm

이미지제공 유신애